

“e-러닝 표준화는 다함께 잘 사는 길”

빌딩이 뻗뻗한 도시 한가운데이자 IT밸리 중심에 자리잡은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에서 만난 문남미 교수. 그녀가 최근 e-러닝 콘텐츠 표준화 작업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를 수십 번씩 드니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 그녀는 e-러닝(e-learning) 표준화를 위한 기술로드맵을 집필한 바로 그 주인공이다. 선정릉을 끼고 위치한 빌딩 3층에 있는 문 교수는 연구실에서 연구원과 연구 발표를 위해 열띤 논쟁을 하고 있었다. 세련되고 깔끔한 회색 정장에 짧은 단발머리의 문 교수는 “임시 건물의 연구실이 너무 좁죠”라며 씩씩한 목소리로 반겼다.

취재 권경희 기자 / 사진 이혜성 기자

“e-러닝이야말로 세계 초고속 인터넷 환경과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미래 성장원동력 중의 하나입니다.”

문 교수가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e-러닝 표준화 작업이다. 일주일에 두 번씩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에 출입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및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, e-러닝 표준화를 위한 고삐를 조이고 있다.

“e-러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원 사이트에 접속해 수업을 듣는 차원을 뛰어넘는 산업입니다. 사교육비 및 교육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는 한국 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.” 문 교수는 e-러닝을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화면을 통해 수업을 듣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한다. “e-러닝 시장은 무궁합니다. 특히 기업시장에서 매우 유익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. 현재 e-러닝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7,113억달러로 미국 GDP의 9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미국은 대기업의 92%가 2000년까지 이미 e-러닝 프로젝트를 실용화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교육예산의 60%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. IDC에 따르면 미국은 2004년까지 148억달러를 e-러닝에 지출할 것입니다. 또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ERP(전사적 자원관리), CRM(고객관계 관리)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e-러닝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”

e-러닝 표준화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 교수는 국내 현황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현황에 대해 술술 설명했다.

“선진국들은 자국의 표준화를 내세워 애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. e-러닝은 이제 교육의 보조수단이 아닌 교육의 핵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화사회에서 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한 거죠. 지식의 ‘소유’ 개념 속에서 파악된 일방향적 교육시스템은 이제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.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정부 주도의 e-러닝협회가 혈기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을 정도입니다. 이들은 우리나라의 100배 이상의 돈을 들여 명품형 블록버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.” 문 교수는 개개인 차원의 e-러닝 콘텐츠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. “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현재 e-러닝 표준을 내세운 시장 선점 경쟁이 뜨겁습니다. 세계 각국에 자국 지식의 표준을 심어준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시스템의 지배를 의미합니다. 가장 한국적인 e-러닝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. 국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콘텐츠 수가 많습니다. 이를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. 과



도기를 거치더라도 현재 살아있는 콘텐츠가 표준화로 인해 대량 죽는 것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. 이에 우선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서서히 없애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.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e-러닝 강국을 만들 계획입니다.”

문 교수는 동영상 국제규격 제정과 표준화 작업도 함께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표준화를 위한 동아시아 모임의 위원이기도 하다. 이 작업의 노하우를 e-러닝에도 백분 발휘할 계획이다.

“표준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. 표준화 기술 속에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빠지면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손해입니다. 현재 국내에서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표준화에 집중시켜 상용화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. 디지털TV-러닝 표준화 등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을 백분 살려 틈새영역을 공략할 계획입니다. 우리도 e-러닝 업체들이 표준화에 함께 동참해 미국, 일본처럼 명품형 블록버스터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.”